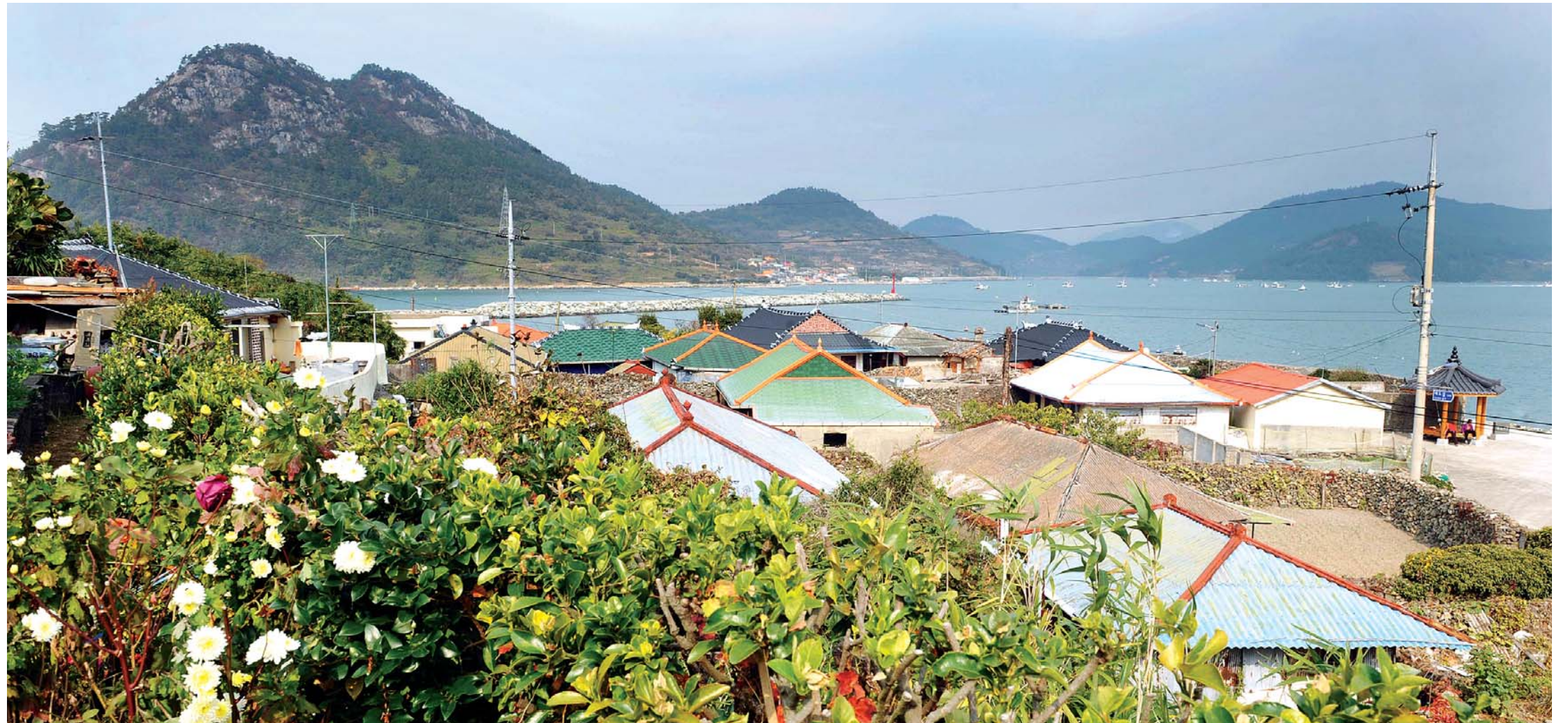


다도해의 보석 섬

20 고흡군 봉래면 애도



숨겨진 '섬속의 섬'...다도해 풍광의 중심

외나로도 선착장에서 도선을 타고 5분이면 닿는 가까운 섬, 고흡군 봉래면 애도(艾島·0.32km) 전경. 한적함이 물씬 풍기는 해안돌담길을 따라 걸다 보면 탁 트인 다도해 절경이 펼쳐진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사시사철 고기 넘쳐나던 부자 섬 400여 주민 지금은 28명만 남아 베일속 절경 관광자원 개발 기대

외나로도 부둣가는 북적였다. '만선(滿船)'으로 돌아온 조기잡이 어선에서는 조기를 털어내 크기별로 분류, 상자에 담은 작업을 하는 어부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물이 찢어질 듯 갑판을 가득 채운 조기와 어부들을 향해 셔터를 눌러대는 관광객들의 웅성거림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고흥군 봉래면 애도(艾島·면적 0.32km)는 여기에서 직선거리로 2km 떨어져 있다. 도선을 타고 5분이면 닿는 '코 달을 거라'에 있는 섬이다.

똑같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섬이지만 외나로도와는 표정도, 분위기도 전혀 달랐다. 섬에 들어서면 귀를 자극하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도시의 분주함을 찾기 힘들다. 대신, 한적하면서도 느긋한 편안함이 '섬 속의 섬'을 감싸안는다. 해안도로를 따라 걸다보면 인근의 사양도를 비롯, 다도해상 절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날이라도 좋으면 여수의 초도·손죽도에 거문도까지 훤히 보인다고 한다.

애도는 내나로도·외나로도·사양도와 함께 동서로 1.5km, 남북으로 2.5km에 걸친 나로도만을 감싸고 있는 작은 섬으로, 면 전체가 다도해상국립공원인 봉래면에 속한 섬이다.

애도는 섬인데도 타지역에서 바구니를 2개~3개씩 들고 쑥을 캐러 오는 주민들이 줄을 이을 정도로 쑥이 많아 쑥섬으로 불렸다는 어원이 전해지는 섬이다. 섬 주민들의 '쑥섬'이라는 명칭에 대한 애착은 대단하다. 최근까지 18세대 28명인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며 이름 찾기에 나섰다 결국 지난 9월 행정구역상 '애도'라는 본래 명칭을 되찾았다.

애도는 최근까지 이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 사양리 '봉호(蓬湖)'마을로 알려져왔다.

행정구역상 사양도·수락도와 함께 사양리에 속한 데다, 동남북이 막힌 호수같다는 이유 등으로 '애도'대

신 '봉호'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주민들도 많았다.

섬 주민들은 그러나 봉호라는 이름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다. 주민들은 "‘봉호(蓬湖)’라는 이름대로라면 쑥이 호수에 잠겨 있는 꼴인데 쑥이 제대로 크겠냐"고 반문했다. 여기에는 예전 풍요롭던 때에 대한 그리움도 한몫했다.

애도는 일찍부터 안감광 어업의 발달로 몰사람 부럽지 않은 부유함을 갖췄다고 한다. 조기·갈치·민어·병어·삼치·양태·새우 등 사시사철 고기가 끊이지 않는 천혜의 어장이었다고 한다.

섬에서 한평생을 살았다는 박선동(90)씨는 "물에

서 웬만한 부자 아니면 '쑥섬으로 딸 혼사(婚事)를 알아본다'는 말을 꺼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물에 눈을 사 소작을 주면서 1년치 땀감을 쌓아놓고 읍내에 나갈 때는 가마니에 돈을 담아 갈 정도였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이러한 섬의 위상은 언제부터인지 고데구리(기선지인망·그물코가 촘촘해 불법어업으로 규정돼 있다)가 활개를 치고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먹고 살 것을 찾아 섬을 떠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3000평에 이르던 밭은 휴경지로 바뀌었다. 수십년간 억척스럽게 지게지고 소를 끌고 다니며 일했

던 땅에는 잡목들이 무성했고 아침·저녁으로 밭 짓는 연기를 뿜어냈던 집은 터만 남았다. 수십척이 넘었던 안감망은 흔적조차 찾기 힘들다.

주민들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들로, 이장을 맡을 젊은층도 찾기가 쉽지 않아 일흔이 넘는 주민이 마을살림을 쉰고 있다.

하루 8차례 다니던 배도 4차례로 횡수가 줄면서 불과의 단절감은 더욱 심해졌다.

'애도'라는 이름을 되찾기를 간절히 원했던 주민들 마을 속에는 한때 4대가 한 가족을 이루며 480명이 넘게 살던, 그렇게 잘 나가던 섬으로 다시 변모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다도해상국립공원 사무소와 전남도, 고흡군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외나로도 선착장과 애도를 잇는 작은 구름다리 하나만 건설하더라도 섬 주민들의 접근성은 물론이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다도해상국립공원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 포인트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탁 트인 다도해 절경에, 방파제로 인근 무인도(소도)와 연결되면서 오랜 세월 풍상(風箱)을 입은 기암괴석이 수평선을 바라보며 서있는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이대로 베일 속에 감춰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박기인(71)이장은 "섬을 따라 조성된 해안도로를 정비하고 최고 높이가 70m에 불과한 야트막한 언덕에 꽃밭을 조성하거나 전망대를 만들면 독특한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끝>

/김진수기자 dok2000@kwangju.co.kr



먹고 살 것을 찾아 섬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해안가에 딱딱딱 붙어있던 집은 터만 남았고 한 때 400명이 넘던 섬 인구는 결국 18세대(28명)가 전부다.

2010 한돈 판매 인증점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돈 판매 인증점
 대한양돈협회

한돈 판매점 이란?
 국내산 돼지고기 만을 사용한다는 대한양돈협회 품질보증 제도입니다.

한돈인증점개념
 공짜-해피타임 pm2시 - pm5시 사이
 일정고객님께 보쌈 2인주문 + 고기1인분공짜 = 고기 3인분
 (4인분주문 + 고기2인분공짜 = 6인분제공, 포장도가능)
 11월 1일 ~ 12월 10일까지 (단, 토요일 제외)

무진주에서는 쌀, 김치, 돼지고기를 모두 국내산으로 사용합니다.

무진주 푸전 보쌈/죽발전문점 MOOJINJOO KOREAN CUISINE
 062)228-8253
 062)224-8074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1-4번

Angelo
 안젤로 이태리가구 전문점

OPEN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07-1 화정동사거리 구, 안기부 대로변 푸조전시장
 400평 대형매장, 지하/365아울렛 전시장, 1층/소파식탁, 2층/명품관 TEL.062-382-0022